

완주군, 마한문화 중심지로 우뚝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 3차 발굴조사 성과 공개... 마한 핵심 유적 확인

완주군 상운리 고분군에 인접한 원상운 고분군에서 마한 문화의 핵심 유적이 확인됐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이날 '2024년 마한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완주 원상운 고분군 3차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최인화) 주최로 고분군 현장(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산 10-3)에서 열린 '발굴현장 오픈 데이'에는 취재진과 역사학자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완주 원상운 고분군은 완주군과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 연차 조사가 이뤄졌으며, 총 9기의 마한 분구묘를 확인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형급 고분(둘레 약 14~16m X 10~14m)은 구릉 위에 일렬로 분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점성이 강한 점토 덩어리가 발견돼 이목을 끌었다. 점토 덩어리는 주로 높은 고분을 조성할 때 안정적으로 분분을 쌓기 위해 사용하는데 분분이 낮은 사례는 드물다.

이외에도 마한의 이른 시기(기원후 3~4세기)에 해당하는 전용옹관(관 용도의 항아리)이 고분에서 확인됐다.

매장시설 중심부에 옹관 조각을 사용하거나 옹관 조각을 가장자리에 세우고 윗부분을 덮은 형태는 전북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사례다.

완주군의 마한 고분군들은 마한 역사를 새롭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 전경

게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역사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완주 상운리 고분군(도 기념물)과 완주 수계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고분들의 변천 과정과 내부에서 출토된 다량의 철기와 옥 장신구 등은 우리나라 마한 문화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실제, 완주의 마한 고분군들은 기원후 3~4기에 해당하는 것들로 주로 6세기 고종 고분으로 나타나는 전남 마한 문화와는 차별화된 마

한의 원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철 생산과 제작 능력을 갖춘 만경강유역 마한 문화는 완주군 역사의 시작이다"며 "선조의 선도적인 능력이 지금의 첨단 수도도시의 발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정비, 개발을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골목길 코믹 호러 연극 '이웃집 쌀통'

극단사람세상 기획 공연 28일~7월 7일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극단사람세상(대표 최군)이 오는 28일 기획 공연 '이웃집 쌀통'을 선보인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군산 대표 연극 단체로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극단사람세상은 1997년 창단해 올해로 개관 28년 차를 맞아 총 79회에 달하는 정기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특히 추미경, 유강민, 은나현, 함형현, 박진형, 김현재 6인의 배우가 열연을 펼칠 골목길 코믹 호러 연극 '이웃집 쌀통'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에 극단사람세상(군산시 신설로 5)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는 2010년 신춘문에 단막극에 공연 당시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코믹 연극 '이웃집 쌀통'의 이야기가 평범한 주제가 골목에 버려진 빨간 쌀통 속 돈뭉치가 발견되며 시작된다. 돈뭉치로 인한 인간의 탐욕과 시기, 질투로 인해 일어나는 한비탕 소동을 이웃마을의 익살스러운 대화와 재치 넘치는 상황을 통해 풀어낸다.

연출을 맡은 최군 대표는 "더운 여름의 시작을 큰 웃음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간 제일 반응이 좋았던 '이웃집 쌀통'을 다시 한번 준비했다"며 "이야기의



배경을 군산시 내운동으로 설정해 지역민들의 몰입감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람 예매는 군산시 한길문고 또는 카카오톡 채널 극단사람세상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극단사람세상(063-468-2130, 010-4233-2619)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호랑이 생일잔치에 초대합니다" 숲속음악대 덩따쿵

국립익산박물관, 7월 6일 국립민속국악원 초청 어린이 국악공연 진행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은 오는 7월 6일에 유아 대상 국악 체험극 '숲속음악대 덩따쿵'을 선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공연하는 국악 체험극 '숲속음악대 덩따쿵'은 동요 '산중호걸'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호랑이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숲속음악대원 토끼, 여우, 피꼬리, 늑대, 곰이 호랑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멋진 국악 연주를 들려주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관람객들이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국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도 해보는 체험이 마련돼 있어, 국악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와 친숙함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7월 6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진행되며, 관람인원은 회차별 130명이다. 36개월 이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

다. 사전예약은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익산을 비롯한 전 북지역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로 3년째 국립국악원 초청 어린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주말, 미륵사지에 위치한 국립익산박물관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국악공연 및 어린이 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가오는 7월 13일부터 진행 예정인 교육 프로그램 '제2기 익산어린이박물관학교'도 현재 참여자 모집 중에 있다.

국립익산박물관 문화행사 및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2회 신석정 창작음악제' 창작곡 공개 모집

부안군문화재단, 8월 14일까지 이메일 접수

(재)부안군문화재단이 8월 14일까지 신석정 시인의 작품을 가사로 한 창작곡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 개최된 '제1회 전국 신석정 창작음악 공모전'이 전신으로 올해 '제2회 신석정 창작음악제'라는 새 이름으로 운영된다.

신석정 창작음악제는 나이, 장르, 학력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밴드로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석정문화관 홈페이지에 있는 70편의 시로 하며, 신청 및 작품의 제출은 8월 14일까지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류를 내려받아 음원과 함께 이메일(bacf3948@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시 작품의 의도와 부합된 멜로디와 음악적 표현력, 대중성, 독창성 등을 골고루 평가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팀과 장려상 2팀을 선정하여 9월 28일 석정문화관에서 개최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금상 80만원, 은상 50만원과 동상 30만원, 장려상 각 2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신석정 서거 50주기를 해로서 본 창작음악제가 신석정 시인의 삶과 문학을 기리고 석정 시의 다양한 색깔이 음악과 융합되어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작년 처음 시작한 신석정 창작음악제에 예상보다 많은 음악인들이 지원하여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전국 음악인들의 창의력과 열정이 담긴 작품을 기대한다"며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신석정 창작음악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문화팀(070-8826-9670 / ahk01@bac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